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에 관한 연구

황지애*, 김성재**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e-mail: jackie02@hanmail.net

A Study on the knowledge of first aid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Ji-Ae Hwang*, Sung-Jae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cheon Jeil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S시와 전라북도 I시, J시에 위치한 4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에서는 코피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급처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관련 교과목 이수자가 미이수자보다 모든 문항에서의 평균값은 높게 나타났다.

1. 서론

영유아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직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관련 지식수준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그러나 2020년 이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관련 연구가 2018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현직 영유아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되는 교직 준비기를 보내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응급처치 관련 지식수준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예비교사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교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가며, 개인의 대학에서의 경험은 예비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4]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응급처치 관련 지식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에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여부에 따라 대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5,6]를 고려할 때,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응급처치 지식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관련 실천적 지식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졸업 후 영유아교육(보육)기관에 근무한다면,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관련 지식수준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어떠한가?
2. 예비유아교사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전북 I시와 J시, 전남 S시에 위치한 4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74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가 제작되어 있는 Google Docs 주소를 알려주고 온라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N	%
학년	1	90	37.5
	2	72	30.0
	3	78	32.5
연령	≤24	218	90.8
	25~29	8	3.3
	≥30	14	5.9
성	남성	2	0.8
	여성	238	99.2
관련 교과목	이수	196	81.7
	이수여부 미이수	44	18.3
합계		240	100

2.2 연구도구

2.2.1 응급처치 지식수준

본 설문지는 석희숙[7]의 교사대상 응급처치 지식 설문지를 유아교육과 교수 2인과 5년 경력의 응급구조사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코피 2문항, 체온 3문항, 외상 4문항, 사고 7문항, 해충 2문항, 중독 2문항, 질병 3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코피와 해충, 중독 0~2점, 질병과 체온 0~3점, 외상 0~4점, 사고 0~7점 등으로 총 0~23점 점수대로 분포한다.

[표 2] 응급처치 지식수준 관련 문항구성과 신뢰도

영역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유형	신뢰도
응급처치 지식수준	코피	1~2	선택형	.78
	체온	3~5		.73
	외상	6~9		.84
	사고	10~16		.75
	해충	17~18		.81
	중독	19~20		.82
	질병	21~23		.77
총 문항수		23		.87

2.3 연구절차

2.3.1 예비조사

2023년 9월 5일,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남 S시 소재 S전문대학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소요시간과 설문문항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였다.

2.3.2 본 조사

본 조사는 2023년 9월 11일~20일 10일간에 걸쳐 전북 I시와 J시, 전남 S시에 위치한 4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74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수하였다. 응답자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 50부를 제외한 총 240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등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예비유아교사는 총 23개 문항 중 절반가량의 11개 문항에서 60%대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그 문항과 정답률을 살펴보면, 익사사고 응급처치법(64.2%)과 코피 발생 시 대처법(56.7%), 출혈에 따른 지혈대 사용법(55.0%), 귀 안 곤충 제거법(54.2%), 경련 시 대처법(53.3%), 열 발생 시 대처법(53.3%), 일사병 대처법(52.5%), 염좌(뺨 경우) 대처법(50.8%), 찰과상 및 베인 상처 대처법(46.7%), 감전사고 대처법(44.2%), 물린상처 대처법(38.3%)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응급처치 지식수준

(N=240)

	정답자 빈도(%)
코피가 나면 아이의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코 앞쪽을 약 5~10분간 꼭 잡아준다.	206(85.8)
코피가 나면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 등을 아이의 코에 올려놓아 코피를 멈추게 한다.	136(56.7)
아이가 열이 나면 찬 보리차·물·청량음료·우유 등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여 탈수를 방지하고 해열시킨다.	128(53.3)
아이가 저체온증에 걸렸을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며 핫팩이나 전기담요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이다.	190(79.2)
아이가 뜨거운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일사병 증상을 보이면 미지근한 물수건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해주면 피부를 신속히 시원하게 할 수 있다.	126(52.5)
아이에게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대를 사용할 경우 상처보다 3cm 정도 심장에 가까운 손, 다리를 강하게 압박해 준다.	132(55.0)
아이에게 염좌(뺨 경우)가 생겼을 때 즉시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어 뺨 곳이 더 이상 붓지 않도록 조치한다.	122(50.8)
아이가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외상을 소독하거나 지혈을 먼저 한 다음 상처 부위에(손과 발의 경우) 부목을 대어 고정하고 바로 정형외과로 데리고 간다.	192(80.0)
찰과상이나 베인 상처가 생긴 경우엔 비눗물로 흠이나 먼지 등 상처 부위의 더러운 이물질들을 깨끗이 닦은 다음 요오드팅크로 상처 부위를 닦고 소독된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거나 1회용 반창고를 붙인다.	112(46.7)
아이가 경련이 발생하여 갑자기 팔·다리를 움직이면 아이의 팔, 다리를 꼭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128(53.3)
아이가 집에서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와 머리가 아프다고 할 경우 2,3일 정도 안정시켜 보고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의사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178(74.2)
아이가 물에 빠졌을 경우 구출한 즉시 다리를 들어 올려 목구멍·코·기도에 피어 있는 물 또는 점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154(64.2)
아이의 음경이 지퍼에 물린 경우는 살과 지퍼를 살펴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는 만지지 말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아이가 고통을 호소할 경우는 차가운 습포나 깨끗한 천에 쌀 알을 지퍼와 음경 위에 올려놓으면 그 부분의 감각이 마비되어 통증을 완화할 수	172(71.7)

	있다.	
	갑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스위치를 내리거나 전류와의 접촉 부분을 막대(쇠/나무 막대)로 쳐서 떼어낸다.	106(44.2)
	아이가 이물을 삼켜 기도에 걸렸을 때는 머리와 상체를 하체보다 낮은 상태에서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친다.	186(77.5)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있던 장소 근처를 면밀히 살펴 혼수상태의 원인이 될 만한 물건이나 근거를 파악하여 빨리 의사에게 통보해 준다.	224(93.3)
해충	사람이나 벌레에게 물리면 우선 상처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피, 타액, 그 외의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한다.	92(38.3)
	아이의 귀에 곤충이 들어갔을 경우는 그 쪽 귀가 위로 가도록 한 다음 귀 안에 따뜻한 소금물(생리식염수)을 부어 보거나 손전등을 비춘다.	130(54.2)
중독	아이가 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는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야 하며 병원 도착 전까지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아이를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가 열리도록 한다.	212(88.3)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안정시킨 다음 음식물을 못 먹게 하고 소금과 포도당이 섞인 물을 소량씩 먹여 수분을 보충해 준다.	190(79.2)
	아이가 대량의 빨간 피가 섞인 대변을 누거나, 항문으로 피가 나오면 수혈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하며, 아이의 대변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172(71.7)
	절 아이가 심한 복통을 호소할 경우는 배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준다.	196(81.7)
	아이가 설사가 날 경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그대로 먹이고 토하지만 않으면 이온음료, 과즙, 보리차, 엽차 등을 끓여서 식힌 다음 30분 간격으로 마시게 한다.	170(70.8)

3.2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 비교

예비유아교사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코피문항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자 ($M=1.49, SD=.57$)가 미이수자($M=1.13, SD=.70$)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t 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521, p<.01$). 다른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항목의 평균값에서 체온문항 이수자 1.87, 미이수자 1.76, 외상문항 이수자 2.36, 미이수자 2.32, 사고문항 이수자 4.81, 미이수자 4.64, 해충문항 이수자 .95, 미이수자 .93, 중독문항 이수자 1.69, 미이수자 1.67, 질병문항 이수자 2.25, 미이수자 2.22, 그리고 총 점수 평균에서 이수자 15.37, 미이수자 14.70 등으로 평균값은 이수자가 미이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 ($N=240$)

구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사례 수	M	SD	t
코피	유	196	1.49	.57	3.521**
	무	44	1.14	.70	
체온	유	196	1.87	.80	.767
	무	44	1.76	.82	
외상	유	196	2.36	.85	.258
	무	44	2.32	.80	

사과	유	196	4.81	1.15	.934
	무	44	4.64	1.08	
해충	유	196	.95	.80	.217
	무	44	.93	.69	
중독	유	196	1.69	.48	.096
	무	44	1.67	.53	
질병	유	196	2.25	.72	.146
	무	44	2.22	.74	
총점수	유	196	15.37	2.38	1.505
	무	44	14.70	1.60	

** $p<.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은 총 23개 문항 중 11개 문항에서 60%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여,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찰과상과 및 베인 상처 대처법과 감전사고 대처법, 물린상처 대처법 등은 50% 이하의 매우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교육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해당직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지닌 전문적이고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무임[8] 고려할 때,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교사의 핵심역량 중 안전지도 및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영유아는 왕성한 호기심에 비해 자기신체조절 능력이 부족한 발달시기상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 후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역량 또한 영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핵심역량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직 준비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비유아교사시기에, 이들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제도 마련에 관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평균값에서는 모든 응급처치 지식 문항에서 이수자가 미이수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코피 문항을 제외한 체온, 외상, 사고, 해충, 중독, 질병, 전체 총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 차이를 비교한 김형근[9]의 연구에서 일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결과와 맥락을 달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지역, 연구 도구의 차이에서 온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원인 해명을 위해, 본 예비유아교사 대상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급처치 문항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자와 미이수자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지역, 다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시도되어 본 연구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관련 교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그 원인에 대한 깊고 넓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1] 이지영, 손복영, 김호인, “영유아 응급처치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 및 요구도”, 영유아교육.보육연구, 제3권 1호, pp.45-63, 2월, 2010.
- [2] 이채호, “유치원 교사의 응급처치지식에 관한 실태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21호, pp.27-43, 11월, 2018.
- [3] 김경란, 오재연, 박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요소에 근거한 유아교사의 응급상황 안전지식과 수행수준 인식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3권 4호, pp.177-204, 11월, 2018.
- [4] Murphy, P. K., Delli, L. A. M., & Edwards, M. N, “The good teacher and good teaching: Comparing beliefs of second-grade students,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제72권 2호, 4월, pp.69-92. 2004.
- [5] 김숙영,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응급처치 지식, 수행능력 및 태도의 차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6] 김형근, 임원청, 강정훈,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 및 인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6호, pp.721-730, 12월, 2019.
- [7] 석희숙, “보육시설의 응급관리실태와 보육교사의 응급처치지식 및 교육 실태조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8] 박영신, 이효림, “예비 유아교사의 학년별 핵심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1호, pp.343-366, 2월, 2016.
- [9] 김형근,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 및 인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